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6년 11월 18일(월) 제679호 창간 16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장 주간 박재우 편집장 고병환 인쇄인 홍준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9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06 FAX 961-4183 (통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신리 산 89

용인 18대 총학생선거 20(수)·21(목) 찬반투표로 서울 1번 김창수·강병석 조, 2번 류종렬·이원복 조 후보 등록



지난 12일(화) 5기 한총련 중앙위원 및 18대 총학생회 정·부 후보 1차 유세가 용인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선거운동본부 노래패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유세에서 후보들은 공약제시와 함께 학생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김학영 기자

내년 2월 한총련·학생회 새로운 도약의 시기, 96 총학생회 및 각 단체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 열기가 한층 더해지고 있다.

20(수)·21(목) 치러지는 제 18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김형삼(동구·학리리 3)·김홍철(자연·물리 3)조가 단독 출마한 용인캠퍼스는 지난 12일(화) 1차 유세 및 14일(목) 정견대회를 마치고 18일(월) 2차유세를 마치고 있다.

100여명의 참석으로 학생회관 앞에서 개최된 5기 한총련 중앙위원 및 18대 총학생회 정·부 후보 1

차 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업 보고 △후보제 약력 소개 △후보자 유세 △이후 내용 일정 보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부부 김홍철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미담에서 우리의 희망과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한다"며 "왕산 7천 학생이 정당한 학생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공동체 건설에 힘쓰겠다"고 이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목) 선관위 주최 및 언론회의의 (학보·The Argus·교직원위원회·FBS) 주관으로

오는 27(수)·28(목) 치러질 서울캠퍼스 31대 총학생회 정·부 후보선거 선거에 '내 삶의 주인은

빈자 '나사못의 교훈'

▲빈자가 한 배를 따라 어느 시골 마을로 가던 때였다. 빈자는 길바닥에 나사못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무심코 발로 툭 차 버렸다. 그러자 그 선배는 아무 말 없이 그 나사못을 주위 호수마냥에 넣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바탕이 약하기 때문에 나사못 하나라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돼. 나사못이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 한 방울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한 방울이 모여 강줄기에 차게 되듯이 우리는 팔 한뼉, 나무 한 그루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사건 이후 빈자는 스스로를 녹슬지 않는 '나사못'으로 재직하면서 남을 위하는 삶을 윤문으로 보여주었다. 오늘날 빈자는 중국 민중의 '교과서'로 중국인들의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매우 평범하지만 아주 위대한 '빈' 같은 삶을 우리는 주위에서 접할 수 있다. 자신의 등록금 가감행위에 어려움 후배에게 모두 귀여운 선배, 어려운 조건을 무로 한 채 학생회에 뛰어돌고자 결심 하는 많은 일꾼들의 헌신성, 통일외의 순수한 열정과 신심만으로 차라리 창상에서 햇살을 기다리는 수많은 청춘들, 그들이라고 좋은 학원, 반듯한 직장에 대한 욕심은 없었는가. 개인의 영달과 출세 앞에 후조의 주지함을 잊었는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에 어떤 세상인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바보 아니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떤 이는 아예 고개조차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유·무형의 냉소주의와 무관심이 이 새로 시작하려는 학생회 일꾼들의 어깨를 처지게 한다는 것을 담신은 아는가. 한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한 톨의 흙이 모여 강줄기에 차는 것을 담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같은 배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어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생긴다고 했다. 나 하나 하나가 내년도 한총련과 학생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나사못'임을 잊지 말자.

권근영

양캠퍼스간 전과 불가 전체교수회의에서 결정

전체교수회의가 지난 14일(목) 잠실롯데호텔 사담대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과 및 편입학 제도 방침 관련, △양 캠퍼스간 전과 금지 △사파에서 제출후 편입시험 가능 등이다.

그리고 학부제(제일제)관련,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배정인원 초과시 1학년 1, 2학기 성적 상위자 순으로 하며 △

동일시에는 수능성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제2전공의 경우는 △대당학과에 배정인원을 일일히 △정원 초과시에는 성적에 따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97년도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로 결정하고 이번 학기 기말시험을 12월 16일(월)에서 11일(수)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본교 엄형식군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본교 엄형식(95년 동아리연합회 회장, 서양·불어 4)은 지난 15일(금) 수배 6개월만에 연행됐다.

지난 7시 30분경 사적경찰 15명에 의해 당산로 근처에서 연행된 엄군과 중앙군 20인에 대한 경찰의 논거는 '이적단체 고무한양' 등의 국가보안법 7조 1, 2항이다.

이와 관련, 동아리연합회 부회

장 이원재(동양·베트남 4)군은 "사실상 수배에 예견처럼 심하지 않고 지난 8월 구속된 13명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방심했었다"며 "이번주부터는 비대위를 꾸려 영치금, 변호사 선임 자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국학생정치연합은 지난 16일(토) '중앙본부 4인 연행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 인 정권대행술을 위해 개혁을 발미로 진보적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다'며 부당한 정권의 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박윤정 기자

지 면 안 내

캠퍼스의 지금
'서바이벌 게임' 중 ... 6년
점차 커지는 마비트세를 좋아한다.
왜? 조영범이 죽어주니까



새로운 영상문화의 위하여
제로 걸리 나온 최후의 순수함-영상수간

국제미인 중국교포 ... 8년
오래된 젊은 사람들 아십니까
'인기부법 개정' 전후 ... 9년
그 개강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그 실상과 내면은?



교육개방,
그 소리없는 총성 ... 10년
정신난단 - 불꽃은 교육개방 한 번

97년 외대를 일구어 갈 그대의 한 표!



김형삼
(정·학리리 91)

김홍철
(부·물리리 91)

18대 총학생회 후보

전환의 시대, 청년의 대안 참여와 단결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각 단과대학 로비에서 찬반투표로 진행됩니다.

용인 정경토론회 내용정리

“한총련 강화·혁신, 대중투쟁에 있다”

전학대회 발족 위해 학칙개정할 것



학생회/학자

학부 학생회, 학내학생회 건설을 통한 전학대회 발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학부제와 시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재 학생회 투쟁은 그 폐단을 줄여나가는 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학부제 전경전략의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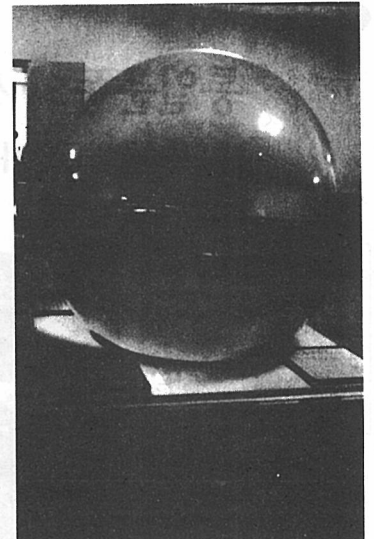
전보장을 핵심과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학칙적인 입장은 학부제 완전철폐이다. =그렇다면 전학대회를 건설을 위한 학칙개정에 상응하고 있는가 =인문대·경상대·지연대·공대를 중심으로 한 학부 학생회, 언론계 학생들은 학내 대표자회의를

건설하여 전학대회대표자 회의(전학대회)를 내년도에 발족시킬 것이다. 전학대회의 경우는 6월경 투표표를 실시할 것이며 2학기에는 이 모든 회계제에 관한 학칙개정을 할 것이다. =동구대에 단대본부에 대한 9년도 사업기초 예산서의 대안은 있

는가 =이 문제는 동구대에 학생회가 주도하여 풀고 총학생회는 동구대에 합법화에 대해 학교측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구대에 교수들과의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만들어 동구대에 발전전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립대학 예산운영을 감독할 제도적 보안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감독할 기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립대학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학교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내년도부터 실시할 9, 10교시에 대한 대비책은 =학생회 지지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9, 10교시 시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발 문제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예를 들면 만차시간 전연차, 식당 연장 운영, 서클바 운영, 재정적인 부분 등이 다. =내년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

신설될 조직체계 및 이에 따른 소단위 분과 연구위원회의 역할분담은, 또한 학생회가 구상하고 있는 '외대 발전공동위원회'에 대해 설 명해달라. 우선 학자 간부를 7명 이상으로 구리겠다. 또한 교학위원회의 내부에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등록금조절위원회(등주위)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봉사학장 등 교과과정 심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등주위는 실질적인 등록금정책심사기구로 만들어 일반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의 재발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해나가는 임무가 될 것이다.

=사람사랑의 개념이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이 그 성과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간부 교양작업을 통해 사람사랑을 간부들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이룰 것이다. =한총련 강화와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은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이 한총련의 혁신과제다. 학생회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치토론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학술부 건설을 통한 학술토론회를 마련을 약속했는데 이의 학생들의 지적감응을 해소할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학생을 학문과 토론의 대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연중 '청년강좌'를 개설하겠다. 청년강좌는 교양시간에 들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내용을 여러 부분제일과 연대하여 진행할 것이다.



‘이건 뭐야?’

서울캠퍼스 대학원 로비에 설치되어있는 공방물을 상징화한 조형물이다. 하지만 인력으로 보여질 줄라이트는 고정된 상태고 인내로 인지가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학생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 조형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곽근영 기자

한승주 기자

서울캠퍼스 난방문제

“학교가 춥다” 효율적 난방 시스템 절실

상수도 유치만이 갈증 해소한다.

‘물’이 부족하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단수는 용인캠퍼스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현재 지면한 시기여 여건은 ‘물’에 대한 갈증을 더 태우고 있다. 장마이후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일찍이지는 ‘갈수기’, 난방을 맞아 높아지는 물의 소비량이 바로 그것이다. 이 난국에 대해 학교측은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는 학내 구성원들의 절수운동과 지하수 파기, 또 하나는 상수도 유치다. 현재 용인캠퍼스에는 15개의 지하수가 있지만 그 물의 양이 한계에 달아 지난 겨울 2개의 지하수를

새로 뒀다. 또 한 군데 지하수에서는 배관작업이 진행중이다. 용인캠퍼스 단수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 유기준 관리주임은 “물줄까지지는 새로 댄 3개의 지하수로 어떻게든 전이겠지만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한 계속 지하수를 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하수를 파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근본적인 대안은 상수도 유치를 시사했다.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에도 △외년도 관여 상수도 연결·연결·사용 가능토록 협조공문 발송 △단계 사업 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 되도록 업무추진 등 상수도 유치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그

러나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서문택 총무과장은 “상수도 유치는 정보부처와 맞물리기 때문에 본교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상수도 유치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팔당에서 물인시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용인시 자체내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교에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총무과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총무과장은 “내년도에는 상수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상황을 전방하고 “현재 빠른 유치를 위해 취수장으로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수운동에 대해 관리주임은 “물탱크 크기 바다에 나는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에는 아홉 수 없이 단수하 게 된다”며 “현재 수도꼭지를 돌아 두는 등 40%를 절수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학내 구성원들의 절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에 대한 갈증을 지하수파는 것으로 의존하는 것은 분명 임시방편일 뿐이다. 학교측의 상수도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학내 구성원들의 절수운동에 대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곽근영 기자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이 다가온 11월 중순, 서울캠퍼스 난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난방체계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난방 기구 또한 불만족스러운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난방문제는 특히 학생들의 주 생활터전인 각 강의실과 도서관 5·6층 휴게실, 학생회관 등에서 문제되고 있다. 먼저 학생회관을 살펴보면 학생회관은 지난주 연등을 설치, 이미 난로 설치를 끝냈다. 강의실 난방의 경우는 전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스템에 의존한다. 스템난방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 1번, 점심에는 하루 두번에서 많으면 세번 정도 가동된다. 너무 춥다는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스템난방을 관리하는 도서관지하 기관실 열관리 담당 조승희씨는 “강의실의 경우 빈 강의

실이 많은데 어떻게 좋은 난방을 하느냐”며 “날씨가 추워지면 강의적으로 난방회수를 판단한다”고 말 해 난방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을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난방은 어떠한가. 5·6층에 마련된 휴게실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난 여름 너무 더워 고생하다 시애틀라 한니가 상온기 주머니 히터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다”는 도서관 5층에서 만난 한 학생의 말처럼 도서관 휴게실의 난방은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5층 휴게실의 경우 넓이에 비해 터미널이 작은 히터 한대만이 있을 뿐이며 올해 새로 설치된 6층 휴게실의 경우 창문이 많아 외풍이 심하고 휴안이 가능해 예도 불구, 공기청정기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져 있지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서울캠퍼스 난방문제의 핵

심은 난방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가동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난방은 중앙집중이면서도 각자 작동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 난방이 버텨져 사용되고 있는 것

자재가 불합리하다. 대학당국은 “국책대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법학 2군의 말처럼 자조적인 말에 신경을 쓰고 학생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용정 기자

취재나수 아직도 계획은 없다!

제2교수연구들이 윤곽을 갖추어 가고 있다. 건물은 완공되어 가지만 건물공기 배치문제에 대해선 완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기획조정처가 맡아서 아직도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

들이 공간문제를 제기하면 교수연구들 다 지으면 말하지도 해 둘 지점에 외서는 국책대학을 계획 내내 나중엔 뭐라고 할까? 진정한 학생들의 공간을 생각하는건지. 어쩌면 종래에는 여전히 학생회관외의 건도 위에서 고등학교 종래들과 뒤떨어질 연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아직도 계획없는 기초조.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등훈 기자



입사는 1년차, 하늘일은 10년차

Challenger 정찬호
입사 1년차에 불과하지만 도전정신과 열정, 끈기, 그리고 팀워크를 발휘하여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 대우-국립중앙도서관 인사팀 96.11월

이재규
96.11월 입사한 이래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Concept Product를 13개 완성
대우-디지털인사팀 96.12월

김태욱
Innovator 김태욱
신뢰와 책임감으로 Computer Simulation을 이용하여
신뢰와 책임감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대우-국립중앙도서관 인사팀 96.12월

대우가 꼭

Creator 김태욱
주요 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대우-국립중앙도서관 인사팀 96.12월

대우가 있습니다

한 내선거를 통해 본 남과 여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소심함을 버려라!

남녀차별없는 선거문화 정착돼야



대학은 가장 진보적,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사진은 동아리연합회 선거유세 장면. 대학 선거의 개성이다. 물론 사회 선거와 같은 상호비방과 각종 선거 비리는 배 없다.

었다. 가장 진보적 사고를 갖고 민주적 사고 방식을 지녀줄을 자부하는 대학에게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대학 선거 문화 중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바로 남성위주의 선거 문화이다. 물론 선거에 남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선거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후보의 진영을 보아도 여성의 숫자는 남성의 그것보다 뒤처진다. 그러나 이것은 '비서' 등의 방식만이 전부가 아니다. 학내 학생회장은 물론이고 각 단 대 및 과회장의 명단에 여성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대학 초등학교의 반장만 해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정·부로 나뉘어 버리는 풍토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진보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교인 서울과 고려의 선거 결과는 최근 3년간 살펴봐도 고대 선거에서의 남녀차별은 심각한 정도이다. 우선 압록 축화생에서 여성은 없다. 또한 각 단대정선선거에서 서울의 경우 95년 동아리 연합회의 부회장, 올해 서양에서 부회장이 여성일 뿐이다. 그리고 원인의 경우는 정무이다. 내년을 위한 올해의 선거에서도 이런 모습은 계속 이어진다.

물론 총학생회와 학생위원회의 대표도 여성이다. 이런 선거문화에 대해서 학생위원회의 위원장 임민희(서양·불어 4)장은 "각 학생들의 분위기는 권위적이고 지극히 남성적이어서 여성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것은 어쩌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표가 모이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기우에서 시작되고 이것은 다시 지도층이라는 것이 권위적이고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자리가 싹트는 외대를 만듭시다

<2> 학생회관



서울

학생회관은 실질적인 우리 외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터전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편집자

△김동현(정맥·정의 2) 연세 무라잡지 모으겠다. 다시 짓자! 아홉마, 중국집 가져와 안락하고 침향하다. 파밤이나 동아리 방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판을 설치하자. 왜 우리가 열방 전파소라, 비밀에가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 발음해 좀 설치해 달라! 우리 쓰레기 버릴 때 항상적으로 학생회관 뒷편에 버리지. 파밤 앞에 버리지 말고.

△조기환(서양·노 1) 공간복 때문에 세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상대지하, 노현지하에 있는 동아리방을 학생회관으로 잠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크게 짓자! 텔레비전, CATV, 위성방송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휴게실에 텔레비전 모니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각 층마다 생수기 설치해 달라!

△김정현(정맥·정의 2) 공중 전화가 없다. 겨우 1층에 두대 있는 전화기는 너무 답답이 많아 바빠 응송학원을 하지 못할 정도다. 자판기(3층)가 너무 더러워서 사용 못하겠다.

남자 화장실에 간담이, 세면대, 자물쇠내리게 종이 다 고장나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다.

△김재현(사법·한고 4) 스티플 들어오는 시간이 학생들 생활과 전혀 맞지 않다. 5시 이후에 학생회관은 스티플을 틀어줘야 한다. 정제적으로 학생회관이 칩착하게 느껴지는 것은 조금 때문이다. 조광 좀 많이 설치해 달라!

용인

△김성현(동학인도1) 학생회관에 난방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열과 저녁 몇 시간 뿐이다. 보통 동아리 사람들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런 난방기구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겨울을 어떻게 견디라는 것인가? 난방기구 사용을 금한다면 난방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이성준(자연·미생물3) 학생회관에 있는 식수대는 학생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한다. 한 미터로 무용지물이다. 미생물이 우물거리는 그 물을 누가 먹는다는 말인가. 우리대에서는 식수대에서 나오는 물로 비커를 닦는 등 기구를 세척할 때 사용한다. 학생회관 측이 알아보고 난 후 물을 사 먹어야 한다.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

△정해운(사학불2) 학생회관 각 층들이 잘 담겨지 않는 것도 있고 너무 부실하다. 한 바퀴만 돌아서 너무 좋다. 이층층으로 해 달라.

△이원철(동학인도2)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을 나누어 쓰는 경우 열 동아리방 사람들 소리가 다 들린다. 벽을 새로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컴퓨터가 있어도 전화기가 사로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전화기 9번을 사용해서 외부로 전화선을 놓아달라.

생활 시평

보물 찾기

어릴 적 소풍 때면 우리는 '보물찾기'라는 것을 한다. 그 '보물찾기'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찾는 아이는 계속 찾고, 못찾는 아이는 해마다 찾아 못해 안타까워 하던 기억이 있다. 나는 그때도 '해난' 때까지는 항상 선생님의 도장이 찍힌 '보물찾기'를 들고 공책을 상용으로 받곤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5학년 때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보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야 보물을 찾았어 안타까워하던 아이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한때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다. 장 애인에게는 정성적인 선물이 보물이 될 것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는 공부 잘하는 것이 '보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자신의 정성적인 선물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신이 공부 잘한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게 혹은 별 의미로 여겨지 않는다. 결국 장 애인이 공부 못하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둘에 대한 보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회 통념상 정상인(어떤 것이 진짜 '정상'인지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나와 다른'을 이해하려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소위 '날리' 중·고등학교 '불만 학생'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측면과 부자식 그들을 도대체 한 방식으로 소위한다. 소위받은 이들에 대한 또다른 소위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소외의 손'을 보냈던 이들이 나중에 '소외받은 이들'이 본래를 잃었음을 깨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난'의 손길은 던지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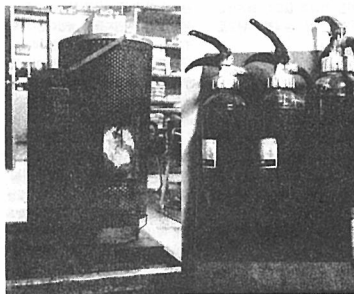
우리 모두 어릴 적 '보물찾기'에서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마음을 되새겨보자.

서윤경 기자

한 내 위험장소 진단

'지금 학교는 서바이벌 게임장'

학내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책 마련돼야



명수당 외에도 학내 곳곳에는 위험시설(장식·물건)들이 산재해 있다. 사진은 서울캠퍼스에 설치된 있는 일명 '헬프노르'와 증기압 솟아오르는 소화기

얼마전 용인캠퍼스에서는 술에 취한 한 학생이 명수당을 건너려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단지 학생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리라 보지만 만약에 사재를 미련에 반하지기 위한 심정을 전혀 갖추지 않았던 학교측 책임은 면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다. 더구나 2년에 한 번꼴로 학생들의 역사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몇 년째 학교측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 단지 몇 글자 적히는 '위험 표지판'만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사실 명수당의 경우 미연상 침초방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수당 근처 10미터 내 출입금지'를 규정한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2년마다 한차례 학생들의 죽어가는 것을 기만히 지켜보만 해야 하는가. 근본대책은 아닐지라도 한가지 방법이 있다. 사진(1)처럼 명수당을 가로지르는 줄을 여러개 설치해 놓고

만일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는 그 줄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번 시행해볼 만한 것이다.

명수당 외에도 학내 곳곳에는 위험시설 아니 앞으로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용인캠퍼스의 경우 가장 심각한 것이 가로등 문제다. 학생회관에서 버스승강장 가는길, 가숙사 가는길, 고시원에서 학생회관으로 가는 길에 대표적이다. 버스승강장 가는 길은 가로등이 고장났는지 아니면 켜는 걸 잊어버렸는지 밤이 됐는데도 항상 꺼져 있다. 대형이 포장이 돼 있어 넘어질 염려는 없지만 어쩌다가 차가 지나가면 어두운 학생들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또 고시원길은 자체 점검이 없어 학생회관까지, 모퉁까지 내려와야 하는 고시생들이 항상 지나가야 하는데 포장도 울퉁불퉁한데 가로등이 밤이 되면 꺼져서(모순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편 서울캠퍼스 마네르와 동산의 배음 캠퍼스 카플(CC)을 제외한 일반학생들에게는 전혀 환영을 못받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세탁'이 아무소용도 통했던지만 정작 학생들이 너무 어두워서 6-7시만 되면 지나가다가가 낙상한다. 한두는 없지만 그래도 동산은 동산인지를 알아볼 가로등 또한 많이 학생들이 부상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캠퍼스 교문 앞 담, 몇 달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던 한 학생이 높은 담 '달한 교문을 넘어' 담장을 넘다가 떨어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본교도 자정이 되면 교문을 걸어 잠근다. 하지만 실제로 동아리나 과에서 자정이 넘도록 리포트를 쓰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높은 담을 넘어야 하고 그러다 다친 학생도 몇 명이고 있다. 중·고등학교나 다른 학교학생들이 본교에 들어와 학교 기물을 파손하거나 관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정 이후 교문을 잠그는 학교교육 활동에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본교 학생들이 담을 넘다가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야 하나.

김태형 기자

문 화 용 달 샘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박성규 지음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

10,000원

저자는 고려왕조의 상황과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인 고려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태백산 화해배까지 좀 더 실재와 가까운 고려의 모습을 찾고자 고려를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취지로 '한 권으로 보는 고려왕조 실록'을 펴냈다. 고려왕조 실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왕조와 국제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중국대륙에서 수립해 나라가 세워졌다 말하는 상황에서 오백년을 버티며 삼을 지탱해온 그들의 강인함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와 대외평화를 함께 취하려했던 그들의 현실적 정치각각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안기부법 폐지 사례

인권탄압 그 끝은 어디인가

개정으로 인한 인권탄압 · 공작수사 확대 우려

최근 헌정헌 사해와 강행관습헌법을 빌미로 정부 측에서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4년, 문민정부의 유일한 성과로 인정받던 안기부법이 다시 왕상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는 옳지 못하다는 여러 재야단체와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간다. 본보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자협)를 찾아 안기부법 폐지사실을 들어 안기부법 개혁에 대해 진단체 보고자 한다. 편집자

“92년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의 박탈은 그 이후 대공수사에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보활동에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일차적으로 초동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이상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 위 사건의 노태우 전직시절 안기부 조직사건관련 기자회견장이다.

그러나 안기부법 개정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손민아씨는 안기부법의 개혁에 대해 “공작 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일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하고 “안기부하면 고문수사가 떠오를 만큼, 미흡하더라도 개정된 안기부법이 다시 개혁된다는 것은 고문수사를 방조하겠다는 말과 다를까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찰은 박종철(36, 전안국원 사무 차장)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불교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최근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로 재야단체와 시민들은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안기부는 박종철씨를 회합·통신(재)조항으로 구속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의 요지는 “90년 일차불심판, 성명불상의 내과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내용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여 왔으며 이후 활동내용을 약속된 통신조직을 이용하여 대북보고하여 왔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차불심판 등의 사전심리의 기본적 요건도 지나지 못한 내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안기부는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여 고문수사를 불러일으켰다. 21일간의 안기부 수사기간 동안 박종철씨는 잠을 거의 재우지 않고 서서 심문을 하였으며 형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자 마침내 안기부는 검찰 송치전 4일

동안 변호인 접견까지 불허한 채 가족한 고문 수사를 벌였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박창희 교수(본교 사학과)를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로 구속했다. 5월 15일 안기부는 박교수를 검찰에 송치하며 별다른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박교수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며 검찰청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은 이를 사실 확인없이 보도했다. 같은 달 18일 박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박교수는 중재신청이유에서 “언론은 자신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무책임하게 보도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역사학자로서의 활동과 ‘국민학교 개명운동’ 등도 간섭당함으로써 대당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원주의 안기부의 부당한 수사에 의해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수감수사라고 손민아씨는 말한다. 또한 손씨는 “안기부법은 국보법 제7조(천안 고문) 제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파시리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면 대학원생 또한 많은 탄압을 받게 될 거예요. 민중의 소리를 대변할 언론까지 탄압을 받아야 한다”고 관련 여가 민주국가인사”라고 개탄했다.

국기라는 거대한 집단의 이익앞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는 거의 일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안보보도장관안보에 처하는 과거의 악몽이 재발할까 불초한 현실에서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회부

안기부법 개정 이렇게 해야 한다

안기부, 수사권없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제 명실공히 21세기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정보기능 및 순수 대공기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안기부 안의 정치 관련기구나 부분들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안기부 고유 업무의 범위도 새로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기부를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도구로 사용돼 오던 것의 반상과 관행을 철저히 불식하는 일이다 (1992. 9. 27. 자 조선일보의 ‘안기부법 개정해야’ 사설)

안기부법은 제 2조 3항에서 협박중 내란의 죄, 의란의 죄, 군항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발자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적으로 검찰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헌법외판의 취지를 살피기 필요하다. 민주화시대 안기부의 위상으로서 안기부를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편하거나 보안법령을 다듬도록 하는 하위 검찰의 수사체제 아래 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1. 16. 동아일보의 ‘안기부는 개편해야 한다’ 사설)

위에 인용된 두 신문의 사설은 당시의 언론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기부 장 조영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민주화시대’를 맞아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여론에 따라 93년 12월 7일 검찰상장법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최대결정 있었던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상의 천안·고문죄(제7조), 불고지죄(제10조)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없어졌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안기부의 예산을 심의·검토할 수 있도록 안기부는 모든 예산의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안기부 예산·업무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정치권력자나 신상하여 안기부장 이하 안기부 직원들의 정치관계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안기부 수사권의 인적 한계에 대한 적법남용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위 문민정부 개혁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정부에서도 자랑하는 안기부법이 개혁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안기부법의 개정이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안기부의 기능을 축소시켜 현대사회에 맞는 국내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정부와 여당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때는 민주화시대이고 지금은 반민주의 시대라는 것인지를 도출해내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적인 요구는 안기부나 정치개입이나 공작수사나 해의 산업정보나 첨단기술 정보수집에 치중해야 한다는 쪽

이다(92. 9. 29. 자 경향신문 사설 ‘안기부법 개정의 핵심’ 중)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일부 언론을 제외한 모든 언론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안기부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들은 지난 8월 한 총선 학살들의 범행하러 통일대추전 사태를 계기로, 또한 10년동안 일관했다는 전수 교수 사건과 강행 간첩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공안정국의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주장을 모두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특색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안정국이 다시 특색화하고 하는 것이, 안기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내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안기부를 활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지난 93년말 안기부의 수사기능이 축소되었다고 해도 3년도 채 안되는 기간중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국민에게 발표까지 놓이면서 북한에 포섭된 제1고정간첩이었던 박종철 전 안국원원 사무차장은 지난 8월 서울지방법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안기부의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틀만 나뉘어 아무런 증거없이 조지사건과 간첩사건을 터뜨리고 그 권한을 남용해 왔다. 박종철 씨를 고문하여 사건을 조작했던 안기부 직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안기부는 지금도 민간단체와 언론사,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있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공자의 사실이 있다.

또한 올해 안기부는 정부 예산 중 예비비의 72%인 약 3천 6백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기부 예산 1천 9백억원의 1.8배나 된다. 그리고 안기부의 불법예산들이 아직도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은닉되어 있다고 하는 관니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안기부의 예산집행내역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나 세도 떨어 뜨리는 옛 안기부의 부활이 저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면, 지금까지의 인권유린이나 예산 남용, 권한 남용을 더욱 부채질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안기부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안기부의 개편일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내의 요인 국가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정보수집기능과 수사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안기부의 예산도 공역이 아니라 정부적으로 할지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안기부법의 올바른 개편일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개정이 아니라 개혁일 뿐이며, 몇 년 후에는 다시 안기부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어려움들을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대 선과 안기부법 개정

안기부는 ‘안전’ 만 ‘기획’ 하라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 막아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권한과 활동을 규정한 ‘안기부법’이 올해말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될 예정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작업이 하나 하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요즘, 또 하나의 예를 보는 듯해서 뒷지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 안기부법 개혁에 있어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안기부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기부는 국내에 정보수집을 독점하고 있으며, 내란·외환·반란·군사기밀누설에 관련된 혐의는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거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난 93년의 안기부법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지 못했

뿐이다. 안기부 법을 다시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기부에게 그 나머지 권한마저도 안겨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안기부가 두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첫째,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이 다시(물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실시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또 다시 야당후보에 대한 흑색선전(92년 총선 당시 홍사덕 후보의 여자 관계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일이 밝혀졌다)이 관을 치게 될 것이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 온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지목받고 있는 김대중씨가 안기부에 의해 또 다시 ‘책갈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문종 세력, 노동운동 세력, 재야단체 등에 무차별적인 검거 선공, 대규모 조직사건 또는 긴급 단 사건 조작작도 예상된다.

셋째, 국가권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비밀 기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힘의 과용으로 대통령 마저도 복무가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사기관(FBI)과 정보기관(CIA)을 분리해 놓았으며, 실제로

없다. 둘째, 국민 누구나 안기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까지 누구라도 안기부의 지목을 받는다면 일단 수사라는 명목하에 인권유린, 사찰, 감시행위가 벌어질 것이다. 물론, ‘법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시민이 아니라 여기저기 재의된다고 해도 집단야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

운동 세력, 노동운동 세력, 재야단체 등에 무차별적인 검거 선공, 대규모 조직사건 또는 긴급 단 사건 조작작도 예상된다. 셋째, 국가권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비밀 기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힘의 과용으로 대통령 마저도 복무가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사기관(FBI)과 정보기관(CIA)을 분리해 놓았으며, 실제로

세계에서 정보수집과 수사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막강한 기관은 소련의 케지비와 동독의 ‘슈타지’밖에 없었다.

넷째, 국가예산의 막대한 낭비가 예상된다. 올해 안기부의 예산은 1천 9백억원이다. 안기부 예산은 비밀 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예산의 낭비를 조차도 막대한 국민세금의 쓰임새를 알 도리가 없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 1천 9백억원의 예산이 모자라서 재정경제원 예비비금 72%인 3천 6백억원을 사용한다고 한다. 안기부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예산은 증액될 것이고 국민 혈세의 행방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안기부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저질러 온 가혹행위, 범죄는 무수히 많다. 안기부에서 고문받은 민간인이 피의되어버린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 안기부에 의해 죽어 간 사람이 몇 명이며, 삶의 방향을 잃어 버린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또 다시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여 안기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려는 행위……. 이것은 민주주의를 사행시켜 버리는 자정과 다름없다.

안대인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총무부장>

'96 「産學 協同賞」 수상

세계의 백만억원은 작은 함성

만도가 있습니다
젊은 기업-
만도가
세계속에
당당히
뻗어가고 있습니다

만도기계(주)

양캠퍼스 과학생회 선거 돌입 학생 참여가 관건

양 캠퍼스는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각 학회와 학생회 상설을 통한 97년도 학생회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후보등록이나 투표일이 확정되지 않은 과도 많으나 대부분의 과는 이다.(★표)

과회장 선거일정 및 후보자 명단

〈서울캠퍼스〉				서양학대			
단과대	학 과	선거	후보자	영 어	18, 19일 조유경·이영림		
동양학대	중국어과	20일	박동진	독 일 어	14일 이인호★		
	아랍어과	15일	김용현 ★	서반어어	20일 미 정		
	태국어과	22일	김세원	이태리어	18, 19일 미 정		
	터키어과	29일	이성준	러시아어	미정 한갑수		
경제학과	신분방송	5일	이영택 ★	폴란드어	14, 15일 장구웅 ★		
	정치외교	19일	김효선	루마니아어	14, 15일 김경수 ★		
	독 일 어	27일	홍성준	유 고 어	14, 15일 박영현 ★		
서양어대	영 어 과	13일	정민호 ★	헝가리어	14, 15일 김용환 ★		
사범대	불어교육		김승철	아 합 어	14, 15일 장국철 ★		
				인 도 어	14, 15일 오종록 ★		
〈웅진캠퍼스〉					중 국 어	14, 15일 권원민 ★	
단과대	학 과			아프리카어	14, 15일	김연호 ★	
인문대	철 학 과	19, 20일	이 철	마 인 어	13, 14일	김효람 ★	
	사 학 과	20, 21일	정승환				
경상대	경영정보	20, 21일	정우영	자연과학대	화 학 과	20, 21일 박대실	
	경 제	20, 21일	최종소	공대	산업공학	12월3일 박진현	
	무 여	28, 29일	박승규		제어계측	7월	이종석 ★
					정보통신	미정	김시현

□지거리 장터를 열었던 전북 부안군 농민 최경찬씨를 만나



이 사람

“물가는 오르면에 수매가는
3년째 동결된 상황이 막막합니다.”



“후문 날씨가 좋지 않아 있다 보니 손이 많이 갔다. 더워서 재지 생기는 한데도”라며 지난주 본교 붉은 광장에서 열린 우리 농산물 지거리 장터에서 만난 전북 부안군 농민 최경찬(29)씨는 수매계 문서를 열었다. 총학생회와 수매관 농민회, 부안군 농민회가 5년전부터 본교에서 열리는 농산물 지거리장터

를 열었는데 어김없이 지난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미련되었다. “200kg짜리 쌀을 600가마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첫날에는 쌀이 안나서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총학생회가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줘서 대형이 어제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실적이 좋았어요”라며 그는 소박하게 웃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 발표된 추곡수매가 3년 연속 동결발표된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렇지 않아도 물가는 자꾸 오르면에다 수매가는 떨어지고 버렸지 거기다 추곡수매가는 올해도 그대로라니 상황이 정말 막막합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요즘 천원짜리 리본도 줄거를 먹는데 돈으로 계산해서 100원하는 쌀값이 조금 오르면에 큰 크레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정희 기자

농산물 지거리 장터 열려 쌀·고추 등 성황리에 판매돼

총학생회와 상경대의 주최로 지난 14일(목)·15일(금) 양일간 전라북도 순창 부안군 농산물 지거리 장터가 붉은 광장에서 열렸다. 순창과 부안군 농민회에서 각 생의 농민이 물리와 쌀·고추·멸치액젓 등을 판매한 이번 장터는 본교가 부안으로 농산물 수매를 수행한 88년부터 매년 한번씩 열렸으나 예외적으로 내년 3월경 한번 더 열릴 예정이다. 또한 쌀과 멸치액젓은 가져온 양이 거의 다 팔리는 등 쌀, 직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와 관련, 부안군 농민의 사무국장 유재홍씨는 “쌀 수매가가 3년째 동결되어 [U·R 이후 농민 자체가 부채한 상황]이라며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거리 장터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각 과 모교방문의 날 행사 졸업생·재학생 힘다지

0... 아프리카어는 지난 10일(일) 9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인 가운데 후북관 교정에서 모교 방문의 날을 개최했다. 과 학생회와 학회로 시작한 이 날 행사는 △과 연혁 소개 △재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보고 등 순서로 마련됐다. 또한 노래패 ‘트윈보’의 공연과 빙고게임, 졸업생의 직장을 알아보는 2분 스피치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최동우(2)군은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하고 홍보 미흡으로 성배남들이 많이 오지 못해 아쉽다”며 “그러나 이 자리는 과거의 역사를 창출하고 내년도 우리 과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0... 제 2회 언어의 밤이 지난 10일(일) 인문대 강의실과 소문동에서 60여명의 참석으로 열렸다. 농구·광명축구·삼각달리기 등 체육대회가 진행되며 학원별 정기시험과 노래 공연 등으로 참석자들의 인기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최동우(2)군은 “이번 행사가 사실상 과의 마지막 사업이 아니냐고 준비하면서 재학생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0... 지난 17일(일) 화학과의 졸업생과 재학생 약 100여명이 모여 총동문회와 모교방문의 날을 진행했다. 이 날은 자연과학대 113호 강의실에서 총동문회 총회가 열렸으며 이후 축구를 통한 화합의 장도 마련됐다. 또한 재래 송파 ‘물부림’의 공연도 들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화학과 홍보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 자리와 관련 최동우(2)군은 “우리 과는 역사도 짧고 취업률도 적어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한배님들과의 뜻은 만남을 통해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행사의 목표를 밝혔다.

0... 이란어는 오는 23일(토) 오후 5시 소강당에서 동문인의 날 행사를 연다. 본 행사 전인 12시부터는 축구·농구를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본 행사는 △인사말 △학원별 개입 △동문회장 선출 △원래 노래, 영어 연극 △이날 총동문회 참석자들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에는 졸업앨범 전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0... 터키어는 지난 16일(토) 소강당에서 모교방문의 날을 개최했다. 73922(73학번에서 96학번까지 24년간의 역사)라는 가치를 내건 이 날 행사는 1부 토크쇼, 2부 노래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2부 마지막에는 예년 동문인의 날 행사 후속작업이 잘못 이루어졌던 것을 사내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단순히 왜 자리가 아닌 우리 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함의의 자리라 되도록 했다”는 기획회의 송창진(3)군은 “한달 남의 준비기간동안 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대학단신

서울

컴퓨터 제 10회 정기 소프트웨어 전시회

제10회 정기 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지난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대학일 소강당에서 열렸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전시하고 외대인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비주얼 베이직, C언어, 3차원 동영상 프로그래밍이 선보였다. 자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컴퓨터회 회장 김영일(상경·경제 2)군은 “학교에 ATM이 설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비록 서울캠퍼스엔 컴퓨터 관련학과가 없지만 외대가 발전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고 염상용 법정후재 기금마련 실천사랑 일일호프

실천사랑에서는 지난 16일(토) 본교 앞 ‘점프(DUMP)’에서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특히 타 일일호프와는 달리 이번 행사는 지난 여름 군부대 박사고교로 승진 고 염상용 회원의 부친의 투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현직 염공의 부친은 지난 여름의 사고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는 점에서 측은 아픔과 수심의 끝없는 명에 화복하기 위해 법정후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수익금의 일부는 실천사랑의 활동기금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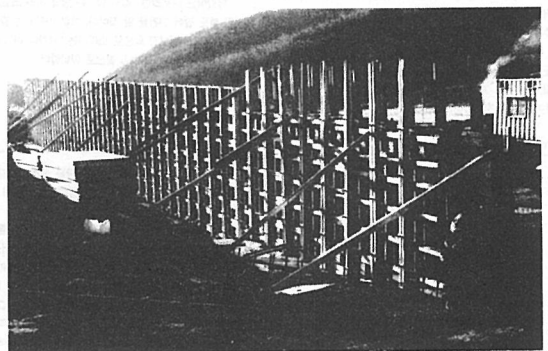
웅진

96년을 되돌아 보는 동구어대 일일찾침

동구어대는 지난 12일(화) 어문과 토비에서 ‘96년을 되돌아 보는 동구어대 일일찾침’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달별 학생회 행사 소개 △새만남 전진 사진 △역대 단과대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회도 함께 펼쳐졌다. 또한 세민전 비디오 상영과 그간 학생회 사업에 대한 스티커 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도 진행됐다. 또한 일일찾침에서 생긴 수익금의 일부는 국가보안법으로 구공 김재규(동구·체코어)군의 영지교회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구어대 사무국장 이상택(유고어 2)군은 “이 자리는 매년 실시해오던 폭풍제가 시기도 늦어지고 역대로 미비 일일찾침으로 규모를 축소해 개최한 것”이라며 “한해 단과대 각 과 학생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생협 주관한세 초청강연회 개최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14일(목) 오후 6시 신강의실 208호에서 주관한(인문학과 연구소)를 초청하여 ‘슬라이드 본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생이 참석할 수 있는 강연은 ‘정통시대의 성 속속사’라는 주제로 △미미바위와 꽃바위의 역사적 만남 △삼성 제와 반란의 곳 △미미바위 속의 숨은 뜻 △수지 3의 비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들은 황지영(서학·노어 2)장은 “예전에는 읽었던 옛 전통문화를 슬라이드를 통해 재미있고 흥미있게 알 수 있었다”고 이 강연을 평가했다.



학생전용주자창공사

웅진캠퍼스 도서관 옆에 학생전용 주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학생들은 학생전용 차량의 진입이 용이된다. 학내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공사에 학생전용 주차장인 교정관 부근에는 교수전용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1997학년도 전기 본 대학교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최우수 국제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일반전형)

- 모집과정 및 학과·인원
가. 석사학위과정(6개계열 38개학과) : 각 학과 학원별
이문학과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프리카어, 이태어, 아랍어, 그리스어, 라틴어, 동유럽어학
동남·남아시아어, 동유럽어학, 언어학, 북유럽어학
이문과학과 : 철학, 사학
지역학과 : 아시아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러시아·동유럽지역
북아프리카, 유전학지역, 아프리카지역
사회과학계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공 학 계 : 컴퓨터공학, 전자·제어공학(신설)
- 나. 박사학위과정(6개계열 24개학과) : 각 학과 학원별
이 문 학 계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랍·아프리카어, 국제어문학, 언어학
이문과학과 : 철학
지역학과 : 국제관계연구학
사회과학계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 수학, 물리학, 화학
공 학 계 : 컴퓨터공학
- 원서교부 : '96년 11월 11일(월)부터 11월 20일(수)까지
- 원서접수 : '96년 11월 18일(월)부터 11월 20일(수) 17시까지
- 시험일시 : '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 전형방법 : ① 전공 ② 영어(영어와 불·중·독·노·일어 중 택1)
③ 구술시험
- 나. 박사과정 : ① 전공 ② 영어
③ 제2외국어(이문학과영학·철학과, 법학과에 한함)
④ 구술시험

※ 문의처 : 대학원 교과과(전화: 961-4104, 962-7117)

세계경영대학원 (야간)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0명
- 모집학과
가. 경영학사학 -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정보관리학과
보험경영학과, 증권금융학과,
나. 경제학사학 - 국제경제학과, 세계지역연구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96년 11월 4일(월) ~ 11월 22일(금)
- 전형일시 : '96년 11월 30일(토) 오후 2시부터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경력 및 재직증명서 1통
- 특전
※ 국가고급공무원 및 기업체 근무는 특별전형함.
비상장제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 장학금을 지급함.
※ 국가공무원, 군, 경찰, 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 자격시험에
특권이 있음.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능을 목적으로하는
본은 유대함.

전화: 961-4109

정책과학대학원 (야간)

-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 모집학과
가.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신분방송학과 - 신분전공, 방송전공
외교안보학과 -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광고홍보학과 - 광고전공, 홍보전공
공공감사학과 - 공공감사전공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96년 11월 4일(월)~11월 29일(금)
- 전형일시 : '96년 12월 7일(토) 오후 2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면담한사진 4매,
학원·성적증명서 1통, 경력·재직증명서 1통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특전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국가공무원(군·경 포함)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전화: 961-4093, 962-3950

초 청 특 강

'96학년도 제 2학기 교양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96. 11. 19(화) 14:00
2. 장 소 : 시청각교육관 220호
3. 연 재 : 북한의 대외정책, 그 실상과 전망
4. 연 사 : 현승일 (前 북한외교관)

1996. 11.

정 책 과 학 대 학 장

초 청 특 강

1996학년도 제 2학기 교양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96. 11. 22(금) 17:00 ~ 18:30
2. 장 소 : 인문과학관 대강당
3. 연 재 : 중동지역의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그 전망
4. 연 사 : Mahmood babae(주한이슬람공화국 대사)

1996. 11. 11

동 양 어 대 학 장

우리말살리기' 위한 몇가지 조언

▷ 성명비 대학생 수기

우리 이제 '김치를 담그자' 그리고 '손뼉을 치자'



과거 우리나라 말에는 일제의 전제가 남은 일본식 단어만이 문제되었지만 이런 영어 등 서양언어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올바른 국어사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현재 강원도 양구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 보내온 글이다. 평소 '우리말 살리기'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필자가 군복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본보에 2번에 걸쳐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글 중 아래 내용을 발췌해 실기로 한다.

편지자

△ 박수 치는 법?

지난 9월 15일 조선일보 '일사일언'이란 기사에 제목부터 해서 '박수치다'란 말이 11번이나 실렸다. 자신을 사관, 음악 평론가로 소개한 글쓴이는 과연 '박수'가 무엇인지 알고 '박수 치는 법'이란 글을 낼 줄 있었을까?

무엇 무엇보다 '법'이란 잘 따르 배운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나로서는 '박수치는 법'처럼 딱 잘라 말하는 글이 두렵기도 하다. 과연 딱 잘라 한 마디로 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박수'란 한자말은 '손뼉치다'란 뜻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박수치다'란 말은 잘못 쓰는 말이 되고

□ 박수를 보내다
박수하다

처럼 써야 옳게 쓰는 말이 된다. 굳이 '치다'라는 말은 내세우려면 '손뼉'이란 말을 쓰면 된다. 쉬운 일이다.

'박수'란 말이 어는데 부터 들어와 쓰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박수'란 말이 우리말 '손뼉'이란 말을 땅속 깊게 구멍이들 파 물어버리려 함을 쉬 노골수 있다.

사를 쓰는 일도 글을 쓰는 일이다. 시는 글 가운데 하나일텐데 글을 쓰는 이로서 '손뼉'이란 말을 마땅히 쓰지 못할만큼 '박수'란 말을 쓰며 그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습이 대체 무엇을 말하든지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 어찌하여 '손뼉치다'란 말은 못 쓰는가?

△ 김치를 '담가' 먹는 사람
형제들 배달원은 조선일보를 뒤적이다 땀 글자기가 눈에 들어왔다. 글씨도 큼직해서 잘 보

였다.

"차례용 김치는 벌써 담갔어요"

(조선일보 96.9.18 19면)

글씨 말이 좀 안 맞는 듯 싶어서 꼼꼼히 살펴보니 '담갔어요'란 말이 잘못 되었음을 알았다.

* -담/그다 + 어 →담귀

김치 담그는 방법(○)

김치 담가는 방법(×)

'담갔어요'대로라면 '김치 담가는 방법'이라 쓰겠지만 보기만 해도 말이 안맞을 것 같다. 이런 바람되는 말도 제대로 못 쓰고 비뚤어진 입으로 소리내는 '담가다'란 말을 버섯이 신문에 박을 수 있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최종규

〈서양·네덜란드 94학번〉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깥을 쏘고 그 길로 내려오는데, 그 숲을 다 빠져 나오면 공부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나서 망각의 숲이라는 소리도 있다.

또 여름에는 그늘진 숲속에 있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벌써 그러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망각의 숲'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배경은 이와는 좀 다르다. 지금 모험에서부터 학교안까지 길게 이어진 중앙도로가 없었을 때 학생들은 그 길을 사용했는데, 89년 이후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의 망각의 숲은 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길이라고 하여 '망각의 길'이었다고 한다. 망각의 숲이란 중앙도로가 생긴 이후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게 모르게 지어진 이름이다.

다음 글은 어릴 적 뇌성마비를 앓아 약간의 장애가 있는 한 학생이 일반학교를 다니다 못하고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까지 합격한 이야기를 적은 글이다. 우리에겐 너무 낯설은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장애인과 검정고시 출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편지자

검정고시, 그것은 나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나서 1달이 지나지 갑자기 뇌성마비 증세가 보여 병원에 다녔으나 병원에서선 정상으로 나오고 별 방도가 없었다.

걸음마를 다시기 넘도록 똥똥이 초등학교 입학 1년이 넘는 9살 때 해야만 했다. 학교에 입학하기는 했으나 아이들의 놀음으로 졸업할 때까지 사립학교를 방치한 채 졸업은 했으나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거리고 먹고 입고 약해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집에서 내린 결론은 인체에 있는 직업적활력을 다 거둬서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인간에서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좀 큰 놀음이 자기 말을 안듣고 너무 귀찮은 게 있었었다. 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그러던 중 난 그 시립내에 있는 교회에서 아바이라는 것을 만나며 공부를 배우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이 88년 초였다. 야학은 학생 여섯명과 선생님 열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원성이었고 선생님은 인체에 있는 장애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자립형이었다. 운영은 선생님들의 회비와 교회의 지원금 또는 '작은자'라는 단체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열악한 편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중학교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낮에는 원에서 자정에 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야 했고 밤에는 중학교 과정 공부를 병행하러가야 이런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돌아지는 풀들은 어쩔 수가 있었고 ...

드디어 시험날. 시험을 보기 위해서 O.M.R 카드를 작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에 때문에 손이 떨려 카드작성에 애를 먹게 됐다. 하는 수 없이 감독관에 의뢰를 하자 감독관이 해주면서 다음부터는 사정에 상관을 하라는 것이었다. 시험은 저녁 5시 30분까지 계속했고 기초가 빈약한 나는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다. 특히 수학이 자신이 있었는데 역시 결과는 수학에서 떨어졌다. 후~ 한숨이 먼지 나 왔다. '또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의 첫 시험인데' 하며 2차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4번에 걸쳐 시험을 보게 했고 합격해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다. 중학교 합격증을 받던 날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뻐서. 그러나 '이제 됐구나' 하며 기쁨을 누릴 시간도 잠깐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움의 시작이었다. 중학교 과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고등학교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눈앞이 캄캄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천하게 지내는 선생님의 격려가 들려왔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중학교 때처럼" 그 말이

"나는 엄연한 대학생이다"

야학을 통해 꿈을 키운 장애인



정말 고맙기 그지 없었다.

그렇게 공부는 계속됐고 마침내 3년만에 고등학교를 마쳤다.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선에 있는 직업훈련소에 입소해 1년간에 훈련을 마치고 일선에 있는 실용전기과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이 되었다. 하는 일은 단순

직업이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직업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 속의 공부를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보처리 2급에 도전했고 학원에 다니기 6개월만에 자격증을 땀다.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면허증도 따고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수험능력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물론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는 못갔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엄연한 대학생인 것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야학 선생님과 검정고시는 나에게 무한한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고 있다. 일반 중·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는 동등하게 살고가고 있으니 말이다.

검정고시를 수료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옳지 못한 일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시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이나 방송대 출신이 졸업 후 졸업장이 그냥 휴지 조각이 아니고 진정한 사회인의 입장이 되는 진정한 졸업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도 좋고 무슨 개혁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혁도 필요 없을 것이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하는 야학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배승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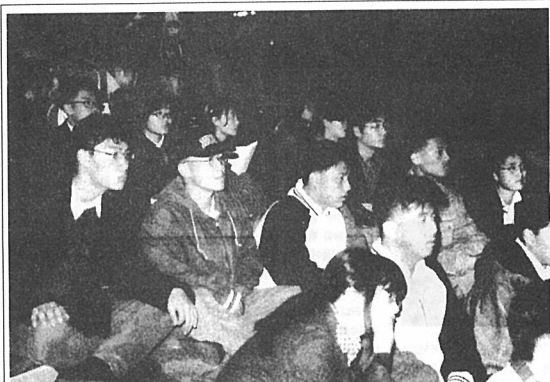


사진
수필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선거. 각 건물에는 공약을 내건 대자보가 붙고 각 후보들은 아침마다 동교동에서. 수업 시작하기엔 강의실에서 연설을 한다. 내년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우리는 그저 하나의 불거림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1년을 일궈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참여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김학영 기자



외대따라잡기

〈6〉망각의 숲

윤인평씨에게는 그 유명한 명수담과 함께 망각의 숲이라는 곳이 있다. 명수담 옆 울창한 나무들이 한 줄로 늘어져서 있는 곳이 바로 그 곳. 망각의 숲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망각할 정도로 많다.

못난이들만 보고 싶다!

제33회 문학상

모집부문 : 시(3편 이상)

소설/시나리오/비평/번역

분량 : 원고지 70매 이상(시 제외)

당선작 : 50만원

가작 : 25만원

해학과 고뇌가 깃든 못난 얼굴들.
정말 제각각으로 생겼죠?
못났지만 어느 누구랑 비교해도 구별되는 얼굴을 가진 우리 전통의 탈.
그렇습니다.

잘생겼지만 개성없는 얼굴보다는
못생겼어도 남과 뚜렷이 구별되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투박해도 남과 뚜렷이 구별되는 글을 보고 싶습니다!!

- 대상 : 본교 재학생
- 마감 : 12월 12일(목)
- 문의 : 서울 961-4152, 4466
용인 0335)30-4112

한류재단
외대화보

제33회 학술상

모집부문 : 인문/사회/자연과학

분량 : 원고지 80매 이상

당선작 : 50만원

가작 : 25만원